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첫 임시회 개최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에 대한 새해 계획보고와 주요업무계획 청취, 기타 의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10일부터는 각 부서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지, 또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지혜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인만큼 보영삼굴(甯馨三窟), 토끼가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세 굴을 파놓는다는 뜻으로 영민한 토끼처럼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디자인할 수 있는 부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설 명절 대비 성수
식품 위생관리 강화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대비해 9일부터 18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는 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4개 반 12명의 감시원이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명절 성수 식품 제조업소 4개 업종 11개소와 대형마트 15개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25개소,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48개소, 전통시장 내 음식점 24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 시작

4개 분야 93개 사업 130명 선발... 행정업무 지원 등 투입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정읍형 상생 일자리 1단계 사업으로 총 93개 사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모집했다.



원 서비스 지원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도시공원 환경정비 등으로 참여자들은 1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7일간 근무하게 된다.

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 발굴

해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에는 3단계로 나눠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총 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총 22억원을 투입 약 420여 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고용창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천만 관광도시 고창, 한결음 내딛다’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군민 붐업(Boom-up)운동 추진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분위기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일 고창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1천만 관광객 맞이에 나선 고창군은 군민이 함께하는 붐업(Boom-up) 운동을 추진하여 범 군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먼저, 군민들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분위기 조성해 나간다. 각종 회의, 워크숍, 찾아가는 기관단체 협업 홍보를 통해 고창 방문의 해 추진 당위성을 알리고 너도 나도 관광전도사 동참 서약을 통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더 친절하게, 더 청결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기관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한 ‘3더 캠페인’을 분기별 실시하고, 매일 셋째 주 수요일을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내집, 내마을, 내직장 클린데이(Clean-day)로 지정하여, “한번 외박더니 또 생각나는” 고창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

고운기 고창방문의해 추진단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타시군보다 한 발 앞서 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군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다시 찾고 싶은 1천만 글로벌 관광도시 고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향인 부안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뻐”

가수 진성 고향사랑기부금 최대한도액 500만원 쾌척

부안군은 부안 출신 가수 진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최대 한도액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부안군은 1호 고액기부자인 이정권 (주)대글로벌 대표에 이어 2호 고액기부자인 진성으로 기부 열기를 이어갔다.

또한 진성은 부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군 공식 유튜브인 배려부안 U-too'에도 출연하며 부안으로의 기부 동참 유도를 위해 앞장섰다.

그는 “고향인 부안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



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

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은 청년 정책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 8기 공약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강조'

이학수 시장이 9일 새해 첫 영상 간담회를 주재,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8개 분야 78개 공약사업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룰 핵심 사업”이라며 “각 사업 추진상황을 주 단위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달라진 제도·시책·법령 등을 시 홈페이지



지 등에 게시하는 등 지속 홍보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기업인들의 목소리

에 귀 기울여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주 단위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 기업의 의견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 사회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송어 양식장 폐사 피해 현장을 찾아 어업인을 위로하고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송어 동사 피해 현장 찾아 위로

심덕섭 고창군수가 송어 양식장 폐사 피해 현장을 찾아 어업인을 위로하고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부안면 송어 양식장 폐사현장을 찾았다. 앞서 고창에선 최근 부안면 양식장 3개소에서 송어가 대량 폐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폐사 원인은 한파로 인한 수온급감과 양어장 수면의 결빙에 따른 산소 부족으로 보고 있다. 피해량은 양식에

가 피해신고접수 결과 송어 24만마(추정)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피해 발생 양식어장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피해량량 등을 조사 완료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올해 양식분야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도록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